

禮山郡 德山の 石佛立像 二軀

金 和 英

一九六二年十一月馬鬮樹夫人一行과 함께 忠南地方踏査時 德山에서 石佛立像 二軀를 調査하였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邑內里石佛

德山에서 洪城行 街道로 約百m 되는 右側 畚中에 石佛立像이 있는데 一枚板石에 陽刻된 것으로 腹部以下가 埋沒되어 下部의 調査는 不可能하였다.

이 佛像은 上面에 徑三〇cm 高三十三cm의 圓形突起가 있는 長方形(八五cm × 七八cm 厚十二cm) 蓋石이 頭上에 嵌혀 있다. 머리에는 寶冠이 있는 듯 冠帶로 보이는 二條의 彫刻이 굵게 보인다. 相好는 양볼에 살이있으나 比較的 긴편으로 耳目口鼻가 뚜렷하다. 兩眉間에는 白毫가 있고 兩耳는 긴편이 아니며 코와 입이 近接해 있다.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며 右肩偏袒한 衣文은 腰部로 흐르고 있다. 手印은 右手가 埋沒되었고 胸前에 들은 左手도 磨損이 甚하여 알 수 없다.

立像 背面的 板石은 舟形擘身光으로 佛像과 一石으로 되었다. 現在南 向한 이 佛像의 位置가 原位置인지는 確實하지 않으나 佛像의 保存狀態는 良好한 편이며 溫柔한 相好라든가 各部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期로 推定된다.

(實測值 cm)

現高二〇〇 肩幅 七七 胸幅 四四 頭高 七六 頭蓋石高二五 光背幅 八六 同厚 二五 立像陽刻厚 二二

二、新坪里石佛

德山溫泉 吳미처 街道石側 李鍾錫氏宅 前庭(新坪里 二區 一七三)에 石佛立像 一軀가 있다.

이 立像 역시 頭上에는 長方形(九〇cm × 七〇cm) 蓋石을 얹고 있으나 頭部에는 아무런 彫飾도 없다. 相好는 比較的 肥大한 편으로 兩眉間에는 白毫가 있고 코와 입이 近接하였으며 特別히 眼部의 表現은 매우 寫實的이다. 兩耳는 어깨위까지 길게 느리운 것 같으나 磨滅이 極甚하며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다. 法衣는 通肩이며 右手는 臍前에 느리워 內掌하였고 左手는 胸前에 들어 內掌하여 母脂와 中脂를 結하고 있다. 얼굴은 보기에 彫刻像이라기 보다 石塊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나 이것은 各部의 彫刻에 磨滅이 甚한 때문이라 하겠다.

衣文等 全體의 手法으로 보아 前記한 佛像과 同期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實測值 cm) 現高二七五 頭高一二三 肩幅 一〇〇 胸幅 六四

考古美術 卍—스

◎ 文化財委 第一分委(第八次)

六月十日午後三時 文化財管理局會議室에서 開催되었는데 出席은 金庠基 金斗鍾 李相伯 金允基 金元龍委員外 河局長 및 管理課長, 文化財課管理係長과 李浩官 諸氏이며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瑞典에서 韓國文化財展示關係

1. 瑞典에서 열리는 韓國文化財展示에 出品함
2. 出品은 繪畫三點內外 陶磁器六點 內外로 함
3. 國寶를 除外한 國有物에서 選定하여 船便으로 輸送한다.
4. 選定은 小委員會에서 하며 그 委員으로 金庠基, 金元龍, 尹武炳, 崔淳雨 諸氏를 委囑한다.

5. 其他事項은 管理局에서 策定하여 第一分委에 附議決定하기로 함

二、密陽嶺南樓敷地內阿浪閣改築은 文教部案의 條件대로 許可하되 無斷히 工事を 始作한 責任者에게는 行政的인 措置를 管理局에서 取하도록 할 것

三、扶餘扶蘇山城內 上水道施設은 金庠基 金元龍 委員의 現地調査後 再討議한다.